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험 평가: 일본의 관점

정책 개요

아키야마 노부마사

2024. 04.

아시아 태평양 전략적 위험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호주, 영국의 국가 공무원, 전문가, 종사자들이 모여 어떻게 위험 인식 변화가 새롭고 진행적인 확산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 전략적인 제한을 권장하기 위한 단계를 포함하여 어떤 정책 해결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큰 협력과 핵 위험 감소 외교를 세심히 연마하는 것이 포함되는 논의를 한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와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의 공동 프로젝트다. 본 보고서에서의 설명은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나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 또는 그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 소개



아키야마 노부마사

히토쓰바시대학 국제 및
공공 정책 학과장
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 겸임
연구원

APLN 의 멤버인 아키야마 노부마사는 히토쓰바시대학의 국제 및 공공 정책 학과장이자 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의 겸임 연구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저명한 국제 그룹의 회원으로서 2000 년부터 NPT 검토 회의의 일본 대표단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No first use’ in the context of the U.S.-Japan Alliance,” Asian Security, (2021), “AI Nuclear Winter or AI That Saves Humanity? AI and Nuclear Deterrence,” Joachim von Braun, Margaret S. Archer, Gregory M. Reichberg, Marcelo Sanchez-Sorondo, eds, Robotics, AI, and Humanity (Springer, 2021)가 있습니다.

총괄 요약

2022년 12월에 일본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 (NSS), 국가 방위 전략 (NDS), 방위력 정비계획 (DBP) 핵심 전략 문서 세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의 방위 태세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을 의미한다. 3문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문제를 강조하나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 군사 활동, 경제적 위압으로 인하여 중국을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과제로 밝히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외교정책과 방위정책을 둘 다 중시한 적극적 접근법을 취했다. 집단적 자위권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FOIP) 구상이 이 전략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포스트 아베 시대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더욱 심각해진 안보 환경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대응의 초점은 잠재적인 중국의 공세적 군사 작전과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반격 능력 신장에 있다.

미일 동맹은 특히 잠재적인 대만 유사 사태시의 대응에 있어 일본 안보 정책의 초석으로 남아있다. 위협, 위압 및 군사 훈련과 같은 중국의 군사 행동이 심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억제는 특히 어렵다.

일본은 중국의 군비 증강 및 공격적 행동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으며 약 80%의 일본 국민들은 대만에 연관된 잠재적 위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일본 자위대 파견에 대한 지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도입 및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를 포함한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일 동맹은 특히 대만 해협과 같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작전 수행 태세와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작전 계획을 조정하고 훈련을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현 상황을 바꾸는 어떠한 시도들을 막는데 중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시다 정권은 FOIP 비전에 따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일본의 국가 방위 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12월, 일본 정부는 세 가지 핵심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NSS), 국가 방위 전략(NDS), 방위력 정비계획(DBP)을 가리킨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휘 아래 국제 안보 부문의 도전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대응하여 5년 이내에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실시하는 결단을 내렸다.¹

새로운 NSS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과제로 삼았다. 세 가지 2022 전략 문서에서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위협으로 언급된 첫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 군사 행동 및 경제적 위압을 포함하는 그 외 행동들은 일본과 국제 사회에 중요한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2022 NSS는 중국을 일본 및 국제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전례 없고 가장 큰 전략적 과제 [인용]’라 설명하고 있다.²

북한의 군사 행동도 일본의 국가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준다.³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핵능력을 양적 및 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였다. 북한은 4번의 핵실험을 하였고 240회 이상의 탄도 미사일 및 다른 비상체를 발사했다.⁴ 일본의 국가 방위 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⁵

결과적으로 일본은 현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보상 중대한 위협 및 유사시 대비 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특히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의 중국의 강경한 자세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 충돌이 터지는 상황이다. 일본 정계는 대만 유사 사태를 ‘일본 유사 사태’라고도 표현한다. 이 경우에 만일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면 일본은 미국에 협력해야만 한다. 대만 사태는 또한 일본의 해상 항로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우위를 점하고 제1 열도선을 넘어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미국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향상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떨어질 것이다. 일본과 그 외 미국의 동맹국들, 파트너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에 노출시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유사 사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보유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켰고 최근에 통일을 포기하고 한국을 적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꿨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포기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한국, 북한, 미국과 같은 핵심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고조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관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고려되는 후자의 두 사례를 분석하여 위기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영향, 일본의 대응을 평가한다.

일본의 전략적 위험 시나리오

중국-대만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고려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만 해협 유사 사태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대만 우발 사태

중국 공산당(CCP)이 중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건군 100주년에 강한 군대를 완성하겠다는 중국 인민 해방군의 목표를 완수하는 2027년경에 대만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⁶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핵심적인 이익’으로 여기고 2005년 3월에 제정된 반국가분열법에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분열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법에는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으며 국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비평화적인 방법 및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허용한다.⁷ 중국은 무력 통일이 아닌 현 상황의 유지를 지향하나, 대만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지배적인 의견이다.⁸

2022년 8월에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하여 중국-대만의 중간선을 가로지른 중국 군용기의 비행 및 군사 훈련의 빈도가 잦아진 것은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중국의 기득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에 시사하는 듯하다. 중국의 관점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 및 그 외 행동들은 대만과 미국이 현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군사 훈련은 현 상황이 바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고, 대만 해상 봉쇄에 대한 예행연습의 역할일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은 이러한 군사훈련이 일본 주변 수역의 자유로운 선박 왕래를 위협하는 시위 효과를 노린 것이며, 대만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중국이 참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다.⁹

중국-대만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고려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유사 사태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본 보고서는 아래에 군사력 평가 및 중국의 정치적 의지라는 두 측면에서 중국의 대만 침략의 현실화 조건을 설명한다.

군사력

2022년 10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우리의 ‘인민 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으로’ 신속하게 증강시키고, 그의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것과 일치하는 “2027년에 중국 인민 해방군 100주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 시스템을 수립하고,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특성의 전투 설비를 확충하며, 무인 및 지능적인 전투 능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의 통합된 개발과 응용을 촉진한다.”¹⁰

중국과 대만 군사력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중국은 지상군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대만 본토로의 직접적인 육상 침략 능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대형 상륙용 함정의 건조 및 취역을 통해 침략 능력을 꾸준히 향상해 왔다. 대만에 대한 해협 침략 작전을 맡는 부대는 중국 인민 해방군의 동부와 남부 전구 사령부이다. 양 전투 지대에 증원군을 포함한 총 약 42만 병력이 대만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한다. 대만군은 약 9만으로 중국군이 4.6배가 많은 지상군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해군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고 있어 공군력과 해군력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대만이 스텔스 콜베트함 개발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게 만들었다.¹¹

대만 역시 사정거리 1,200km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과 미국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GM-158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대만은 PAC-2s를 PAC-3s로 업그레이드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PAC-3s를 도입하여 탄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1,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많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소유하고 있고 대만은 이러한 미사일에 대응할 유효한 수단이 부족하다 생각된다.

한편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 해협을 건너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8척의 도크형 수송함, 30척의 전차 양륙함, 3대의 헬리콥터 강습 양륙함을 갖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동시에 2만 병력밖에 수송할 수 없다.

핵보유 능력에 관해 중국은 현재 350~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추정된다. 미국방부는 중국이 2027년까지 700개, 2030년까지 1,000개, 그리고 2035년에는 1,500개의 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현재 약 1,550개의 탄두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2035년이 되면 균등한 상태를 형성할 것이다 (탄두 수가 동일한 것만으로는 균등한 상태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도 있음).¹²

미국은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안정된 억제 관계를 필요로 하나 3국 사이의 안정 균형을 찾는 것은 힘들 것이다. 더욱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상호 취약성 인정은 미중 관계의 안정과 맞바꾸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견제할 능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아니라도 적어도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력 저하가 확실해지면 핵 확장 억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일본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동맹군 지원

대만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대만 관계 법령에 따른 미국의 약속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력 저하가 확실해지면 핵 확장 억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일본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공식적인 동맹이 아닌 대만을 지원할 목적의 일방적인 미국의 표명이다. 미일 동맹과는 달리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공통된 지휘 명령 계통과 작전 계획이 없으므로 미국과 대만이 공동 작전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는데 분명한 언명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 왔다고 할 수 있다.¹³

일본에서는 현 상황을 바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중국의 군비 증강 및 강경한 자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80% 가까운 일본 국민들은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 불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기 위한 자위대 배치를 지지하는 것은 단 22%였다. 한편 44%는 미군에 무기와 탄약 공급을 포함하는 후방 지원 이외에는 자위대를 배치하지 않는 생각을 지지했고, 51%는 반감을 나타냈다. 또한 48%가 자위대의 개입 없이 미군이 일본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47%는 반대했다. 미군이 일본 내의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47%의 응답자가 동의하였고, 49%는 반대하였다.¹⁴

국내의 정치적 요인

중국이 국내 정치와 경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대만에게 무력을 행사할 위험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이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국내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겪는다면, 이러한 불만은 집권 중인 공산당으로 전가될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지도부는 국수주의를 조장해 국내 문제에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수단으로 대만을 향한 무력 사용과 같은 강경한 외교 정책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둘째, 대만을 본토와 통일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약속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모른다. 대만 통일을 위한 시진핑의 열망은 국가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특히 다른 국내 문제 속에서 그의 리더로서의 정통성과 카리스마를 향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의도는 대만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에 의존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내정상 필요성과 국제적 야망이 섞인 중국 정치 수뇌부 내의 복합적 역학관계가 반영된 대국적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만 침략이라는 선택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 사태

군사력

2022년 12월의 일본 국가안보 전략은 북한의 위협을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고 표현했다.¹⁵

북한의 핵무기 확대 일본에게 심각한 우려이다. 한국은 2023년 2월의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무기 제조 수준의 플루토늄 비축량이 이전 평가인 50kg에서 70kg으로 그 추정치를 업데이트했다.¹⁶ 북한의 소형화된 핵무기, 특히 저전력 핵무기(소위 전술 핵무기)는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은 기동성 있는 전술핵무기의 개발과 병행해 최근 정책전환을 발표했다(김정은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해 헌법을 개정하도록 지시).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로 인해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뿐만 아니라, 일본 공격시에도 핵을 사용할 위험성이 고조되었다.¹⁷ 그러나 일본에 더 ‘임박한’ 위협으로는 북한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다.

북한은 미사일 운용 능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탄도 미사일 방어를 뚫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극초음속활공체 탄두와 화성 17, 18형과 같은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질적인 향상의 현저한 예이다. 게다가 일련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향상된 은닉성, 생존성, 신속성을 증명하였다. 1) 동시다발적 발사, 극히 짧은 간격으로 연속 발사, 다른 지점에서 특정 타깃으로 발사, 2) 다양한 플랫폼의 임의의 지점에서 발사, 즉, 향상된 발사 은닉성과 신속성, 3) 고체 연료 사용.¹⁸

실제 미사일 운용 능력에 관해 북한은 포화 공격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기간동안 화살 1, 2형을 포함해 15~16발의 순항 미사일을 5차례 발사하였다.¹⁹

북한의 정책 전환

한국을 향한 북한의 표현이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 2023년 말, 김정은은 한국을 ‘적대적 국가’, 남북 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라 묘사했다.²⁰ 또한 2024년이 전쟁 준비를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시기라고 공표했다. 2024년 1월 15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은 ‘제1의 적대국’ 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3개 기관의 폐지도 결정했다.²¹

칼린과 헤커의 관점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맞건 아니건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국가 목표라는 견해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호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헤커는 논문에서 두 가지 근거에 의거하여 제2차 한국전쟁의 잠재적인 발발을 경고했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속원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기대를 포기했다. 둘째, 국제 환경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변했다.²²

칼린과 헤커의 관점에서 김정은이 전쟁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맞건 아니건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국가 목표라는 견해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척으로 억제력이라는 형태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내 분쟁이 쉽게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 평가

대만 유사 사태

일본에서는 대만 유사 사태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시점에 중국이 대만 침략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군사력 면에서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규모를 대만과 단순 비교하면 중국은 이미 대만의 4배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어 침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투가 계속되려면 중국은 대만 해협을 건너 보급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수송 능력과 해상, 해중의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 바꿔 말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대만 무력 침략을 막으려면 대만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급 지원 부대가 대만에 상륙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지속적인 보급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느끼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략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만약 중국이 대만 침략을 결정하면 군사 작전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대만 해협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도록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A2/AD(접근 저지 및 영역 거부) 능력을 발휘해 미 해군의 역내 진출을 막고 이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군사 자산을 무력화시킬 것이다.²³ 다시 말해, 분쟁의 초기 단계에 일본의 미군 기지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타깃이 될 것이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이나 각자의 본토에 대한 보복 핵 공격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자군의 공격 자산을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범위를 벗어난 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일본은 반격하기 위해 장거리 공격 능력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조치는 중국의 응징보복 능력(제2격 능력)을 축소하고 전투 지속 능력을 약하게 할 것이다.

미군은 현재 충분한 대항 조치가 부족하다. 일본은 2022년 12월에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에 따라 장거리 공격이나 ‘반격 능력’ 개발을하기로 선택했다.²⁴ 이러한 능력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과 자체 미사일 시스템 배치가 포함된다. 그러나 그러한 반격 능력을 증강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중국의 군사력도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았으나 미일 동맹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중국이 미군의 일본 내 기지 사용이나 미군의 작전에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원하는 것을 저지해 일본과 미국의 대만 지원을 사실상 단념시키려 할 경우, 인지전을 펼쳐 일본 여론의 분단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군과의 연계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이용해 중국이 이를 뒤흔들 수도 있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협조하는 이상, 일본은 비핵보유국의 자격이 없으며, 더 이상 중국의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이 아니다(또는 일본이 중국 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일본이

미군과의 연계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이용해 중국이 이를 뒤흔들 수도 있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협조하는 이상, 일본은 비핵보유국의 자격이 없으며, 더 이상 중국의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이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원하려면 일본의 후방지원과 호위 및 일본 국내 미군 자산의 보호가 필수불가결하므로,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부추겨 일본과 미국을 분단시키는 것은 중국이 대만 침략 작전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 유사 사태의 위험성

한반도 유사 사태에 관해 북한의 최근의 정책 전환과 핵전력 강화가 즉시 북한의 한국을 향한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러한 성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정권 존속을 지향하는 접근 방식에서 아마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 미국의 간섭을 제거하는 정책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게다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 통일을 추구하고 한국을 군사적으로 장악한다 하더라도 통일 국가를 운영할 가능성은 없으며 북한 정권 존속 면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이 직면한 제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동시에 위기적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력이 저하된 미국에게는 한반도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고 북한은 판단할지 모른다. 더욱이, 미국 국내에서 여론이 분열되거나 미정부가 개입 결단을 내리지 못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미국 측의 그러한 요인들이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외교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너무 편향된 시각일 것이다. 물론 북한이 미국을 향한 협상 카드로 위기를 부추기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 반면에 미국은 국내의 합의형성 실패로 인해 북한에 관여할 기회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잃었다는 사실은 북한이 미국의 관여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 수 있다.²⁵ 만일 그렇다면,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대화와 맞바꿀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는 것에 일부는 회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련의 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며 결국 북한은 과거보다 미국과의 대화를 덜 중시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을 행사해도 일본 자위대는 미국 및 한국의 군대의 전투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속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일본의 후방 지원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대만 유사 사태시에 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핵사용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사일 능력 개량이 북한이 일본에 가하는 핵 위협을 키웠고 일본을 향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췄을 수 있다.

북한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정권의 존속이며 한국에 핵 공격시 미국이 참수작전이나 전략적 공격을 펼칠 위험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듯하더라도 북한 사람을 밑에 두고 통치하며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한민족 동포를 향한 핵무기 사용은 정당성을 상당히 떨어트리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적 장애물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낮다. 또한 일본에 대한 핵 위협성 고조나 일본을 향한 핵 협박은 일본을 한반도 정세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협박을 믿게 하기 위해 북한은 정말 일본에게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일본을 향한 핵 사용의 문턱이 낮을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듯하더라도 북한 사람을 밑에 두고 통치하며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한민족 동포를 향한 핵 무기 사용은 정당성을 상당히 떨어트린다.

가능한 대응 : 몇 가지 제언

일본의 일각에서는 중국이 설정한 군사훈련 구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겹쳐,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EEZ 권내에 낙하한 것을 두고 단호한 자세의 표시로 외교적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력 강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취하거나 고려해야 할 정책 조치는 무엇인가? 일본은 미사일 방어 체제 및 국토 회복력의 향상을 통한 거부로 억제하는 능력을 높이고, 장거리 공격 능력 개발을 통한 징벌에 의한 억제 능력(일본 공식 문서에는 ‘반격 능력’이라 언급)으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일본의 장거리 공격 능력만으로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으나 일본과 미국의 공동 노력이나 미일 동맹 역내의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시너지는 대만 유사 사태시에도 중국이 무력으로 현 상황을 강제로 바꾸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²⁶ 게다가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는 대만 유사 사태와 같은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미일간 작전계획을 조율하고, 양국이 그들의 자산을 매끄럽게 연계시켜 확장 억제전략을 실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반격 능력에서의 미일 합동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견고해지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²⁷

무력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미국과 일본의 자세를 중국에게 보이기 위해 평시에도 필수적으로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중국이 설정한 군사훈련 구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겹쳐,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EEZ 권내에 낙하한 것을 두고 단호한 자세의 표시로 외교적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진정한 약속과 억제에 대한 결의를 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합동 군사 훈련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항조치가 필요하다.²⁸

일본의 2022년 NDS에 따르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황의 변경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 침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매끄럽게 즉시 대응하려면 독자적인 방위력을 정비하는 한편, 억제가 필요하다는 이념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²⁹

NDS는 이러한 대응을 일본이 적응해야 할 전쟁 방식의 변화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항공, 해상, 육상의 침략에 더해 향상된 정밀 타격 능력이 있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위장 작전과 같은 정보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개, 우주, 사이버 및 전자기 도메인과 무인 자산을 이용한 비대칭 공격이 있다. 더욱이 핵 보유국들이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핵무기 협박 등의 언행을 섞은 새로운 전쟁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전쟁에 대응하는 능력은 미래의 방위력 구축에 있어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NDS는 침략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해 원거리에서 침공하는 전력을 저지, 제거하는 능력으로서 다음의 능력을 중시한다. (1)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2) 억제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우위성을 얻고 여러 도메인에서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 (3) 무인 자산 방위 능력, (4) 크로스 도메인 작전 능력, (5) 신속하고 끈질기게 계속 활동하며 상대방의 침략 의도를 단념시키는 지휘, 통제, 정보 관련 기능, (6) 기동 배치 능력, 국민 보호, (7) 지속성과 회복성.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7가지 능력은 미국 국가 방위 전략에서 제시한 미국의 통합적인 억제력의 개념과 같은 맥락이다.

미일 동맹 연계 강화도 해결 방안 중 하나이다. 2023년 1월의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결심했다.’³⁰

만약 일본 자국의 방위를 위해 주요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고 결국에는 침략을 미리 멀리서 멈추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일본이 자기 방위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미국은 대만의 방위에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을 쏟을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 3자 간의 연계 강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연계는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더욱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은 대만 유사 사태 시에도 필요하고, 중국이 강압적인 행동과 현 상황의 변경 시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2023년 8월에 미국, 일본, 한국의 리더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3국의 파트너십 강화가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3국간 협위에 대한 공약’³¹이라는 세 가지 문서에 명시되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에는 3국이 공통 비전을 확인하고 그들의 파트너십이 공통 가치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문서에는 3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인도 태평양이 번창하고, 연결되고, 회복력이 있고, 안정되고, 안전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통 능력 창출’³²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위 문서는 안보 협력에 관해 탄도 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 실적을 토대로 다년간의 공동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실시간 미사일 발사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방어 협력, 북한 사이버 활동 관련 3개국 실무그룹, 정보 공유 및 협조 향상, 외부 정보 조작 대응 등에 합의했다. 이러한 협조 노력은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참가국 사이의 안보 협력 실패의 위험을 줄여줄 목적으로 제도화되고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간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에서는 3국이 ‘우리의 공통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인 문제, 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연계시키기 위해 신속한 형태로’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만 유사 사태 발생 시 한국이 합동 군사 행동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연쇄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략적 대화를 통한 위협 감소

중국과 북한과의 일본의 관계성때문에 상호 간의 전략적 관심과 이해에 대한 솔직한 건설적 대화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본, 미국, 한국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능력 구축과 연계 강화를 통해 억제 자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 중에도 단기간 위기 확장 및 중장기적인 군비 경쟁의 위기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전략적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피하고 오해와 오산에 근거한 악화의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억제력과 우발 사태 대처 능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억제력 및 우발 사태 대처 능력만 향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오해나 오산으로 인한 우발적인 확장을 피하기 위해 위기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 시 양측이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대적인 위협을 감소시키고, 전략적 관계상 핵의 중요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양측의 위협과 우려에 관한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

군사능력 증강은 억제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의도, 사고 과정, 군사력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하면 각 나라에서 잘못된 정보에 따른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다. 위기 발생시에 예상치 못한 악화를 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채널과 위기 발생시의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간에는 이미 위기 발생시의 대화 채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유효성에는 아직 의문점이 있다.³³ 중국은 기존의 대화 채널을 확장 전략에 반영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며, 의도적으로 이를 중단시켜 긴장을 고조시켰다. 핫라인이 위기 방지라는 가장 큰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려면 정기적 대화를 통한 신뢰 양성이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은 기존의 대화 채널을 확장 전략에 반영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며, 의도적으로 이를 중단시켜 긴장을 고조시켰다. 핫라인이 위기 방지라는 가장 큰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려면 정기적 대화를 통한 신뢰 양성이 필수불가결하다.

전략적 대화는 양측이 서로의 우려를 이해하고 안정성과 미래의 위협 감소를 위해 전략적 관계의 방향성을 둘러싼 상호 이해를 확립하기 위한 토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비 관리’ 접근법³⁴을 채택한 시나리오에서 남는 가장 큰 난제는 북한이 NPT, IAEA 안전보장조치협정, 연속적인 UN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여 핵무기 획득을 통해 현 상황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핵 비확산 체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³⁵ 다시 말해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세계가 국제적인 핵확산 금지 체제의 규칙 위반을 사실상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인정하면 지역 안팎의 비핵보유국가들에게 비확산체제의 불평등 인상을 더 강하게 남길 것이고, 핵 위협에 대해 무력(혹은 억제) 대응을 정당화하고 정착시킬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북한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군비관리를 통한 위기관리 접근은 잠정 조치에 불과하고 ‘비핵화’ 라는 목표를 향해 협상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결론

정치적 신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이나 강압을 위해 군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중국의 자세가 점차 명확해진 가운데, 일본은 NSS와 NDS를 포함하는 일련의 전략 문서 뿐만 아니라 미일과 한미일 협의를 포함하는 양자 및 소다자 안보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합의된 문서를 지침으로 삼아 일본 주변과 인도 태평양 지역 전역에 억제 자세를 강화하는 데로 안보전략의 초점을 바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자국 및 일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원하는 형태로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과 북한의 무력에 의한 현 상황 변경 시도의 저지를 지향한다.

그러나 방위력 강화는 억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반면, 전략적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토대의 역할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의도, 사고 과정, 군사력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면 잘못된 정보에 따른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다. 위기 발생시에 예상치 못한 악화를 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채널과 위기 발생시의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 동향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투명성이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은 위기 고조를 막기 위해 억제력을 구축하고 역내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양측의 전략적 이익에 관해 중국 및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 하며, 위기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위협 감소를 향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Prime Minister's Office,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Kishida" (December 16, 2022).
- 2 Government of Jap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December 2022), pp.8-9.
- 3 NSS, p.9.
- 4 See th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https://www.nti.org/analysis/articles/cns-north-koreamissile-test-database/>
- 5 Government of Japan,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December 2022), p.7.
- 6 Cf. 峯村健司, 『台湾有事と日本の危機 習近平の「新型統一戦争」シナリオ』 [Kenji Minemura, Taiwan contingency and crisis of Japan: Xi Jinping's "New-type unification war" scenario], PHP, 2024.
- 7 『反分裂国家法』 [Anti-Secession Law], March 2005, interpretation provided by CSIS Interpret: China, <https://interpret.csis.org/translations/anti-secession-law/>.
- 8 Minemura, op cit.
- 9 奥谷龍太「『台湾情勢の行方は』 大規模軍事演習に見る中国の意図」、NHK解説委員室blog, [Ryuta Okuya, Prospect for the Taiwan Situation: China's intention in a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NHK Commentators' blog, August 12, 2022, <https://www.nhk.or.jp/kaisetsu-blog/100/472247.html>.
- 10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Full text of the report to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ctober 2022,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202210/t20221025_10791908.html.
- 11 Numbers from: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US Department of Defense, 2023, p.185, <https://media.defense.gov/2023/Oct/19/2003323409/-1/-1/1/2023-MILITARY-AND-SECURITY-DEVELOPMENTS-INVOLVING-THE-PEOPLES-REPUBLIC-OF-CHINA.PDF>; note that the Japanese 2023 defense white paper cites 94,000 Taiwanese troops, see: "Defense of Japan 2023." Ministry of Defense, 2023, p.99. https://www.mod.go.jp/en/publ/w_paper/wp2023/DOJ2023_EN_Full.pdf.
- 12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2023, p. 111.
- 13 Some view that President Biden's repeated indications of defending Taiwan, which were against U.S. official policy line, were not accidental, but calculated to toughen the policy without exceedingly provoking China. Cf. Trevor Hunnicutt and Sakura Murakami, "Biden says he would be willing to use force to defend Taiwan against China," Reuter, May 24, 2022, <https://jp.reuters.com/article/idUSKCN2N902B/>.
- 14 新聞通信調査会『メディアに関する世論調査結果の概要 第15回』、2022年、[The Japan Press Research Institute, Summary of Opinion Surveys on Media, no.15, 2022], <https://www.chosakai.gr.jp/wp/wp-content/themes/shinbun/asset/pdf/project/notification/yoron2022press.pdf>.
- 15 NSS, 2022, p.9.
- 1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2022 Defense White Paper, February, 2023, https://www.mnd.go.kr/user/mndEN/upload/pblictnt/PBLICTNEBOOK_202307280406019810.pdf.
- 17 Pablo Robles and Choe Sang-Hun, "Why North Korea's Latest Nuclear Claims Are Raising Alarms," New York Times, June 2, 2023,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3/06/02/world/asia/north-korea-nuclear.html>.
- 18 Cf. Vann H. Van Diepen, "North Korea's New HS-18 Makes a Solid but Incremental Contribution to the ICBM Force," 38 North, Stimson Center, April 20, 2023, <https://www.38north.org/2023/04/north-koreas-new-hs-18-makes-a-solid-but-incremental-contribution-to-the-icbm-force/>.
- 19 阿久津博康「日本に対する北朝鮮の核・ミサイルリスク―ゲーム・チェンジャー―リスクを踏まえた抑止の課題―」、日本国際問題研究所 研究レポート、2024年1月9日、[Hiroyasu Akutsu,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risks to Japan: Issues on deterrence incorporating "game changer" risks," JIIA Research Report, January 9, 2024], <https://www.jiia.or.jp/research-report/missile-fy2023-03.html>.
- 20 Lee Min-yong, "Kim Jong Un's Declaration of a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a Big Deal," The Diplomat, January 18, 2024, <https://thediplomat.com/2024/01/kim-jong-uns-declaration-of-a-hostile-relationship-between-north-and-south-korea-is-a-big-deal/>.
- 21 Ibid.
- 22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https://www.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 23 Stephen Biddle and Ivan Oelrich,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 Access/Area Denial, US Air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 no. 1 (2016), pp.7-48.
- 24 Cf. NSS.

- 25 North Korea's expectation on US commitment at the 2018 summit meeting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was well described in the following op-ed. 神保謙「米朝交渉の舞台裏—非対称な非核化と安全の保証の取引—」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コラム、2018年6月21日、[Ken Jimbo, Behind the scene of US-DPRK negotiation: Asymmetric deal between denuclearization and assurance of security,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Colum, June 21, 2018], https://cigs.canon/article/20180621_5108.html.
- 26 Yuki Tatsumi, Pamela Kennedy, and Kenji Nagayoshi, "Japan's Strategic Future and Implications for the Japan-US Alliance," Stimson Report, February 28, 2024, <https://www.stimson.org/2024/japans-strategic-future-and-implications-for-the-japan-us-alliance/>.
- 27 Tatsumi et al. points out that it would take more than five years before coordinated capability in medium-ranged missiles would be operational. He points out issues on the pace of Japan's capacity building, coordination in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nd managing escalation risks.
- 28 See also, Yoshihiro Makino, "US Forces Move Ahead to Contain China: Hurdles Still High for SDF," Asahi Shimbun (online), June 16, 2023
- 29 US Navy and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s have been conducting joint exercises in East China Sea for some years. Cf. 「東シナ海で日米共同訓練実施... 尖閣周辺の禁漁明け、中国けん制か」、読売新聞、2020年8月19日 ["Japan-US joint exercise was conducted in East China Sea: As Fishing Prohibition period around Senkaku Islands ends, Checking on China," Yomiuri Shimbun, August 19, 2020]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00819-OYT1T50272/>.
- 30 NDS, p.10, 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strategy/pdf/strategy_en.pdf.
- 31 US Mission Japan,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January 11, 2023, <https://jp.usembassy.gov/joint-statement-security-consultative-committee-2plus2/>.
- 32 U.S. Embassy & Consulates in Japan, Trilateral Leaders' Summit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ugust 19, 2023, <https://jp.usembassy.gov/trilateral-leaders-summit-japan-us-south-korea/>.
- 33 See: "Camp David Principles," The White House, August 18,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camp-david-principles/>;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August 18,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the-spirit-of-camp-david-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 "Commitment to Consult," The White House, August 18,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commitment-to-consult/>.
- 34 David Santoro and Robert Gromoll, "On the Value of Nuclear Dialogue with China," Issues and Insight Special Report, vol.20, no.1, November 2020, https://pacforum.org/wp-content/uploads/2020/11/issuesinsights_Vol20No1.pdf.
- 35 For argument on arms control approach, please refer: Toby Dalton and Ankit Panda, "U.S. Policy Should Reflect Its Own Quiet Acceptance of a Nuclear North Korea," Commentar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ovember 15,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2022/11/15/u.s.-policy-should-reflect-its-own-quiet-acceptance-of-nuclear-north-korea-pub-88399>.
- 36 Some Japanese scholars expressed concerns on arms control approach for a reason of credibility of deterrence. Cf. Hirofumi Tosaki,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Japan's Deterrence Posture," Japan and the World, Japan Digital Library,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March 2017, https://www2.jiia.or.jp/en/pdf/digital_library/world/170314_tosaki.pdf.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